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9/26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

최근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바꾸고 투표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산과 인력 소요 등을 문제 삼아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과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에 직장 휴무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609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9월 24~25일(2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4.0\%$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21%
8.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투표 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 48% vs.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50%
20, 30 대는 연장, 40 대 이상은 현행 유지 원해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만 19세 이상 성인 609명에게 현행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가 48%,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가 50%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20, 30 대,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는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반면, 40 대 이상, 주부층에서는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민주통합당 지지자(168 명)의 65%는 투표 시간 연장, 새누리당 지지자(204 명)의 70%는 현행 유지를 주장해 지지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무당파(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 226 명)에서는 투표 시간 연장 52%, 현행 유지 44%로 연장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렸다.

•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

(단위: %)

		표본수 (명)	오후 9 시까지 연장해야 한다	오후 6 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모름/의견없음
전체		609	48	50	2
성별	남성	302	47	52	2
	여성	307	49	49	2
연령대	19~29 세	113	66	34	—
	30 대	125	66	31	3
	40 대	134	44	56	—
	50 대	114	42	55	3
	60 세 이상	122	21	74	5
직업별	농/임/어업	20	27	73	—
	자영업	78	45	52	3
	블루칼라	92	49	49	2
	화이트칼라	203	59	41	—
	가정주부	140	35	60	5
	학생	34	69	31	—
	무직/기타	42	30	67	4
주요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204	28	70	2
	민주통합당	168	65	35	—
	지지정당없음	226	52	44	4

(질문)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일은 공휴일이므로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에 유권자 10 명 중 3 명, 직장인의 절반은 근무

국회의원 선거일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다. 일반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쉬지 않아도 되며,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10 조(공민권행사의 보장)는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성인 609 명에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했는지 여부를 묻은 결과, 32%가 ‘근무했다’, ‘휴무했다’는 28%,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는 38%,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전체 유권자 10 명 중 3 명 정도, 다시 말해 당시 직장인의 절반 가량은 선거일에 근무한 셈이다.

선거일 근무 여부는 직업별로 차이가 있어 블루칼라(92 명)의 62%, 자영업자(78 명)의 50%, 화이트칼라(203 명)의 33%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 근무 여부

(단위: %)

		표본수 (명)	근무했다	휴무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	모름/ 의견없음
전체		609	32	28	38	2
성별	남성	302	37	36	25	2
	여성	307	26	20	51	3
연령대	19~29 세	113	33	27	37	4
	30 대	125	31	46	20	3
	40 대	134	37	34	27	2
	50 대	114	38	22	40	1
	60 세 이상	122	20	10	67	1
직업별	농/임/어업	20	3	4	90	4
	자영업	78	50	16	33	1
	블루칼라	92	62	26	10	2
	화이트칼라	203	33	59	5	4
	가정주부	140	12	4	83	1
	학생	34	6	5	81	8
	무직/기타	42	24	15	62	-

(질문) 귀하의 직장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에 휴무했습니까, 근무했습니까?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